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7월 4~5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베트남 7월 경제 동향

- 베트남, '25년 경제성장률 최고 8.5% 도전
 - 팜 민 쯔 총리는 중앙·지방 경제 성장 시나리오 회의에서 앞서 정부·국회가 발표한 최소 8% 이상이라는 목표보다 더욱 구체화해 올해 8.3~ 8.5%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
 - '25년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 시,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USD 5,1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GDP는 USD 5,000 달성 전망
 - 앞서 '25년 상반기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7.52%로 '11~'25년 동기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 6.6 → 6.3% 하향 조정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을 반영해 올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6%에서 6.3%로 0.3%p 하향 조정
 - 베트남의 산업 생산은 지난해말 이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관세 정책은 올해와 내년 베트남의 수출 수요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인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힘
 - 그러나 국내 개혁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베트남은 강력한 교역 성장과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집행액 증가로 성장했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베트남의 경제 전망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 베트남 철강시장, '25년 하반기 회복세 기대
 - 베트남철강협회(VSA)는 최근 정부의 경제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면서 하반기 국내 철강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 협회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 회복의 주요 요소로는, 주택 공급 증가, 공공 투자 확대 등이 국내 철강업계 생산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

2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베트남, 디지털기술산업법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 및 민법상 재산권 인정
 - 응웬 각 릭 과학기술부 정보기술산업국장은 투자 컨퍼런스에서 지난 6월 제정된 디지털기술산업법은 베트남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구축한 사례이며 연간 거래대금이 USD 1,000억 이상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디지털 경제를 진일보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해당 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전자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성·발행·저장·이전·인증된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민법상 실물 자산과 동일한 가치를 지님
- 베트남, 최고 20% 세율의 부동산 양도세 도입 추진
 - 재정부는 최근 최고 20% 세율의 부동산 양도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법 대체안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
 - 초안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세는 과세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전망이며, 과세 소득은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차익에서 관련 비용 일부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 베트남, 개인소득세 누진체계 7단계→5단계 개편 추진
 - 임금근로자의 소득세 누진 체계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
 - 현재 베트남은 급여소득자에 소득구간별 7단계 누진 체계(5~35%)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높은 세율과 함께 납세의무자 대부분의 소득이 각 과표구간의 기준액 초반에 걸쳐있다는 점을 들어 개편을 당국에 요구
-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에 특사단 파견
 - 베트남 특사단은 28~30일 베트남에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확대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

3 베트남 기타 동향

- 빈스피드, 자본금 2.5배 확충
 - 베트남 고속철도 전문 개발업체인 빈스피드(VinSpeed)가 자본금을 VND 15조(USD 약 5.7억)까지 2.5배 증액하며 북남고속철도 사업 수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빈스피드는 빈그룹(Vingroup)의 팜 넷 브영 회장이 북남고속철도 수주를 겨냥해 지난 5월 설립한 고속철도 전문 개발업체로 현재 빈스피드의 주주별 지분율은 브영 회장 51%, 베트남투자그룹(브영 회장의 개인 회사) 35%, 빈그룹 10%, 브영 회장 처제(빈그룹 이사) 3%, 브영 회장 장·차남 0.5%씩으로 주주 구성은 변경되지 않음
 - 빈스피드는 자본 확충 외 최고재무책임자(CFO), 수석 BIM 엔지니어, BIM 부서장, 기술이전 수석 전문가 등 대규모 인력 채용 진행 중
- 베트남 총리, 일본 개발사에 하노이스마트시티 조속한 완공 촉구
 - 팜 민 쩌 베트남 총리는 스미토모 산하 도시개발그룹의 유키히토 혼다 CEO와의 회담에서 하노이 스마트시티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
 - 스미토모와 BRG그룹 컨소시엄인 North Hanoi Smart City Development Investment(NHSC)가 투자하는 USD 42억 규모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은 하노이 북부 옛 Dong Anh현(현 티엔록 및 폭틴사) 일대 270만㎡ 규모로 개발 예정이며, 특히 108층 높이 금융센터는 하노이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은 바 있음
- 동부건설, 2,166억원 규모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 지역 도로공사 수주
 - 동부건설은 호치민시에서 건설부 산하 미투언사업관리단과 미안-까오랑 도로 건설사업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 미안-까오랑 도로건설 사업은 총연장 26.6km 구간에 걸쳐 왕복 4차로 도로와 18개 교량을 신설하고 연약지반 보강공사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 총 공사비는 약 2,166억원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과 베트남정부 재원이 투입되며, 동부건설이 주관사로 공사전반을 이끌 예정

□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베트남) 꽝찌성 감로 풍력발전소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꽝찌성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VND 6.5조 (USD 2.5억)
- (사업내용) 200MW 용량 발전소
- (추진계획) '25. 착공 / '28. 운영 개시 목표

- (주요사항)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에 등재된 사업
 - 꽝찌성은 감로 풍력발전사업 외에도 사업비 VND 1.8조, 48MW 규모 편탄롱 풍력발전사업, 사업비 VND 1.3조, 30MW 규모 폭탄안 빈푹 풍력발전사업 사업자도 모집 예정

② (베트남) 닌빈 공항 건설 추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닌빈성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ICAO 4E급 민·군 겸용 국제공항, 720ha, 연간 여객 수용 1,000만 명
- (추진계획) 미정

- (주요사항) PPP 방식 추진 예정
 - 닌빈 국제공항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650ha)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으며 하이퐁 깃비 공항은 약 85km, 박닌 지아빈 공항은 약 63km, 탄화 토쑤언 공항은 약 85km 떨어져 있음